

[19] 5월

초 1일(무인) 맑음. 아침을 먹은 뒤 사정방에 올라가니 날씨가 아주 맑고 시원했다. 종일 땀이 퍼붓듯이 흘렀으나 기운은 상쾌해진 것 같았다. 아침에 아들 면()과 집안 계집종 4명 관비(官婢) 4명이 병 간호를 위하여 들어 왔는데 덕(德)만 남겨두고 그 나머지는 모두 내일 돌려 보내라고 일렀다.

초 2일(기묘) 맑음. 새벽에 회()가 계집종들과 함께 어머니 생신 상차려 올릴 일로 돌아갔다. 우수사와 흥양(* 배흥립) 사도(* 김완) 소근 첨사(所斤僉使 * 박운(朴潤))가 보러 왔다. 기운도 점점 회복되었다.

초 3일(경진) 맑음. 아침에 흥양이 휴가를 고하고 돌아갔다. 늦게 발포(* 황정록(黃廷祿))가 보러 오고 장흥도 왔다. 군량을 계비(計備)했다. 공명 고신(空名告身) 3백여장 및 유서(諭書) 2장이 내려 왔다.

초 4일(신사) 흐리고 미친 바람 큰비가 종일 쉬지 않고 밖에는 더욱 심악스러웠다. 경상 우수사 군관이 와서 고하되 왜적 3명이 중배(中船)를 타고 추도(楸島 * 통영군 산양면)에 온 것을 만나 잡아 놓았다고 하므로 신문한 뒤에 압송해 올 일로 일러 보냈다. 저녁에 공대원(孔大元)에게 물으니 [왜들이 바람을 따라 배를 띄어 저희 본토로 향하다가 바다 한가운데서 큰 바람을 만나 배를 부리지 못하고 표류해서 이섬에 댄 것이라] 하더라고 하나 간사한 놈들의 말이라 믿을 수가 없었다. 이설(李潑)과 이상록(李尙祿)이 돌아갔다. 본영 탐선이 들어왔다.

초 5일(임오) 비바람이 크게 불어쳤다. 지붕이 세 겹이나 겹혀 조각조각 날아가고 삼대같은 빗발에 몸을 가리지 못했다. 어이 없었다. 사도(蛇渡)가 와서 문안하고 갔다. 큰 비 바람은 오후 2시쯤에 조금 그쳤다. 발포(鉢浦)가 떡을 만들어 보내 왔다. 탐선이 들어와 어머니님께서 편안하신 줄 알았다. 다행한 일이다.

초 6일(계미) 흐리다가 늦게 개었다. 사도, 보성, 낙안, 여도, 소근(所斤)들이 보러 왔다. 오후에 원수사가 사로잡은 왜인 3명을 거느리고 왔기에 문초를 받아 본 즉, 이랬다 저랬다 만 번이나 속이므로 원수사를 시켜 목을 베고 보고하게 했다. 우수사(* 이억기)도 왔다. 술 세 순배를 마시다가 상을 물리고 돌아 들어갔다.

초 7일(갑신) 맑음. 기운이 편안한 것 같았다. 침 16군대를 맞았다.

초 8일(을유) 맑음. 원수 군관 변응각(邊應殼)이 원수의 공문과 장계 초본과 임금의 유서(諭書)를 가지고 왔는데 [수군을 거제(巨濟)로 진격시켜 적으로 하여금 무서워 도망가게 하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경상 우수사와 전라 우수사를 불러 의논하고 방략을 정했다. 충청 수사(* 이순신(李純信))가 들어왔다. 밤에 큰 비가 왔다.

초 9일(병술) 비. 비. 종일 빈 정자에 홀로 앉았으니 온갖 생각이 가슴을 치밀어 회포가 산란했다. 무슨 말로 형언하랴. 가슴이 막막하기 취한 듯, 꿈속인듯, 멍청이가 된 것도 같고 미친 것 같기도 했다.

초 10일(정해) 비. 비. 새벽에 일어나 창문을 열고 멀리 바라보니 많은 배들이 온 바다에 깔려 있었다. 적이 비록 쳐들어 온다 해도 섬멸할 만했다. 늦게 우수사 우후(* 이정충)와 충청 수사(* 이순신)가 와서 장기를 겨루었다. 원수 군관 변응각도 함께 점심을 먹었다. 저물녘에 보성 군수(* 김득광)가 왔다. 비는 종일 그치지 않았다. 아들 회()가 바다로 나간 것이 걱정스러웠다. 소비포(所非浦)가 약을 보내 왔다.

11일(무자) 비. 비. 저녁때까지 내렸다. 3월부터 밀린 공문서를 날날이 처결했다. 저녁때 낙안(* 김준계(金遵繼))가 와서 이야기했다. 큰 비가 퍼붓듯이 밤낮을 그치지 않았다.

12일(기축) 큰 비가 종일 오다가 저녁에야 조금 그쳤다. 우수사가 보러 왔다.

13일(경인) 맑음. 이날 금모포(黔毛浦) 만호의 보고에 [경상 우수사에 소속된 보자기들이 격군을 싣고 도망가다가 현지에서 붙들어 오려는데 원수사가 크게 성내어 도리어 사복들을 결박하였다] 하므로 노윤발(盧潤發 * 관군)을 보내어 풀어 주게 했다. 밤 10시쯤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14일(신묘) 비. 비. 종일 비가 내렸다. 충청 수사 낙안, 임치(* 홍견(洪堅)) 목포(木浦 * 전희광(田希光))들이 보러 왔다. 영리(營吏)를 시켜 종정도(從政圖)를 그렸다.

15일(임진) 비. 종일 비가 왔다. 아전을 시켜 종정도를 그렸다.

16일(계사) 흐리고 가는 비가 오더니 저녁에 큰 비가 시작하여 밤새도록 내려 집이 새어 마른 데가 없었다. 여러 배 사람들의 거처가 괴로울 것이 무척 염려스러웠다. 왕래하여 문답한 초기(草記)를 보내어 왔기로 그것을 보았는데 통분함을 이길 길이 없었다.

17일(갑오) 비가 퍼붓듯이 오고 바다위에는 안개가 덮혀 지척을 분간하기 어려운 채 저녁에도 그치지 아니했다.

18일(을미) 비가 종일 내렸다. 미조항 첨사(*김승룡(金勝龍))가 보러 왔다. 저녁에는 상주포 권관(尙州浦權管)이 보러 왔다. 저녁에 보성이 돌아갔다.

19일(병신) 맑음. 장마비가 잠시 그치니 마음도 상쾌했다. 회() 면() 및 계집종들을 보낼 때 바람이 순탄하지 않았다. 이날 송희립(宋希立)이 회()와 함께 착량(鑿梁 *통영군 산양면 당동리)에 가서 노루 사냥을 할 즈음 비바람치고 안개가 자욱했다. 오후 8시께 돌아왔는데 날씨는 아직 활짝 개지 않았다.

20일(정유) 비는 왔으나 큰 바람은 조금 그쳤다. 웅철 현감과 소비포가 보러 왔다. 온종일 홀로 앉았으니 갖가지 생각이 가슴을 치밀었다. 호남 방백(方伯)들이 나라를 저버리는 것을 생각하니 참으로 유감스러웠다.

21일(무술) 비. 비. 웅철과 소비포가 와서 종정도(從政圖)를 놀았다. 거제 장문포(長門浦 *장목면 장목리)에서 적에게 사로잡혔던 변사안(卞師顔)이 도망해 돌아와서 하는 말이 적의 허세가 그리 대단하지는 않다는 것이다. 큰 바람이 밤낮을 통해 불었다.

22일(기해) 비가 오고 큰 바람도 불었다. 오는 29일이 빙모의 제삿날이라 아들 회와 면을 보내고 계집종도 내보냈다. 순찰사에게 편지를 써 보내고 순변사에게도 편지를 써 보냈다. 황득중(黃得中) 박주하(朴柱河) 오수(吳水)들을 격군 수색해 오는 길로 내보냈다.

23일(경자) 비. 웅천과 소비포가 왔다. 늦게 해남 원(海南 *위대기(魏大器))이 와서 술안주를 바치므로 충청수사를 청해 와서 밤 10시쯤 헤어졌다.

24일(신축) 잠깐 맑더니 저녁에는 비가 왔다. 웅철과 소비포가 와서 종정도를 놀았다. 해남도 왔다. 오후에는 우수사와 충청 수사가 와서 종일 이야기했다. 구사직(具思稷)에 대한 장계를 가져 갔던 진무(鎭撫)가 들어왔다. 조카 해()가 들어왔다.

25일(임인) 비. 비. 충청 수사가 와서 이야기하고 돌아갔다. 소비포도 와서 밤이 깊어서야 돌아갔다. 비가 조금도 그치지 않으니 싸움하는 군사들이 오죽이나 답답하랴. 조카 해가 돌아갔다.

26일(계묘) 비가 오다 개다 했다. 거처하는 마루 서쪽 벽이 무너져 개바라지로 바람이 불어드니 시원한게 아주 좋았다. 과녁판을 정자 앞으로 옮겨 놓았다. 이날 이인원(李仁元)과 토병 23명을 본영으로 보내어 보리를 거둬 들이도록 하라고 일러 보냈다.

27일(갑진) 개었다 비오다 했다. 사도, 충청수사, 발포, 녹도와 활을 쏘았다. 이날 소비포가 아파 누웠다고 했다.

28일(을사) 잠깐 개었다. 사도(*김완)와 여도(*김인영)가 와서 활을 쏘겠다 하므로 우수사와 충청 수사를 청하여 함께 쏘게 하고 취하여 종일 이야기하다가 돌아갔다. 광양 4호선의 부정 사실을 조사했다.

29일(병오) 아침에는 비가 오다가 저녁에는 개었다. 빙모의 제삿날이라 공무 보지 아니했다. 저녁에 진도(*김만수(金萬壽))가 돌아갔다. 웅천 및 거제 적량(赤梁 *고여우(高汝友))들이 보러 왔다 돌아갔다. 어둑녘에 정 사립(*공의 군관)이 고하되, [남해 사람이 배를 가지고 와서 순천 격군을 싣고 나간다] 하므로 잡아다 가두었다.

30일(정미) 흐리되 비는 오지 아니했다. 아침에 적들과 도망가자고 괜 광양 1호선 군사 경상 보자기 3명을 처벌하였다. 경상 우후가 보러 왔으며 충청 수사도 왔다.

[20] 6월

초 1일(무신) 맑음. 아침에 배 첨사(*배경남(裵慶男))와 함께 밥을 먹었다. 충청 수사가 와서 이야기했다. 늦게 활을 쏘았다.

초 2일(기유) 맑음. 아침에 배 첨사와 함께 밥을 먹었다. 충청 수사도 왔다. 늦게 우수사(*이억기) 진에 갔더니 강진(*유해(柳澮))이 술을 바쳤다. 활 두어손을 쏘는데 원 수사도

왔다. 나는 몸이 불편하여 일찍 돌아와 누워서 충청 수사와 배문길(裨門吉 * 배경남의 자)이 장기 내기하는 것을 구경했다.

초 3일(경술) 아침에 맑더니 오후에 소낙비가 몹시 퍼부어 종일 밤까지 그치지 않고 바닷물조차 흐려지니 근래에 드문 일이었다. 충청 수사(*李純信)와 배첨사가 와서 바둑을 두었다.

초 4일(신해) 맑음. 충청 수사, 미조항 첨사 및 웅천(*이운룡)이 보러 왔기에 종정도를 높게 했다. 저녁에 겸사복(兼司僕)이 임금의 분부를 가지고 왔는데, 그 사연에 이르기를 [수군 여러 장수들 및 경주(慶州)의 여러 장수들이 서로 화목하지 못하다 하니 앞으로는 그런 습관을 모두 버리라]는 것이었다. 통탄스럽기 그지없었다. 이것은 원균이 취해서 망발을 부린 것 때문이었다.

초 5일(임자) 맑음. 충청 수사가 와서 이야기했다. 사도, 여도, 녹도(*송여종(宋汝宗))가 함께 와서 활을 쏘았다. 밤 10시께 급창, 금산(金山)과 그 처자 3명이 아울러 유해병으로 죽었다. 3년이나 눈앞에 두고 미덥게 부리던 자라 하루 저녁에 죽어간 것이 참혹하구나. 무우밭을 갈았다. 송희립(宋希立)이 낙안, 흥양, 보성으로 군량 독촉할 일 때문에 나갔다.

초 6일(계축) 맑음. 충청 수사, 여도 만호와 더불어 활 15순을 쏘았다. 경상 우수사 우후(*이의득)가 보러 왔다. 소나기가 왔다.

초 7 일(갑인) 맑음. 충청 수사와 배 첨사가 와서 이야기했다. 남해 군관과 색리(色吏)들의 죄를 다스렸다. 송덕일(宋德驥)이 돌아와서 유서(諭書)가 들어온다고 했다. 이날 무우씨 2되 5홉을 심었다.

초 8일(을묘) 맑으나 찌는 것 같이 더웠다. 우수사 우후(*이정충)가 왔다. 충청 수사와 더불어 활 20순을 쏘았다. 저녁에 중 한경(漢京)이 들어왔다. 어머니가 평안하시다니 다행한 일이다. 미조항 첨사(*김승룡)가 돌아갔다. 회령포 만호(會寧浦萬戶 * 민정봉(閔廷鵬))가 진에 이르렀다. 군사에 대한 공로를 따라 상과 벼슬을 내려 주는 *관교(官敎)도 왔다.

초 9일(병진) 맑음. 충청 수사, 우수사 우후가 와서 활을 쏘고 우수사도 와서 함께 이야기했다. 밤 늦게 해()의 젖대 소리를 듣고 영수(永壽)의 거문고를 들으면서 조용히 이야기하다가 돌아갔다.

초 10일(정사) 맑으나 더위가 찌는 듯했다. 활 5순을 쏘았다.

11일(무오) 맑으나 무덥기가 쇠라도 녹일 것 같았다. 아침에 울(蔚)이 본영으로 갔다. 작별하는 정회를 이길 길이 없었다. 홀로 빈 마루에 앉았노라니 마음을 건잡을 수 없었다. 늦게 바람이 사나와지며 걱정이 더욱 무거워졌다. 충청 수사가 와서 활을 쏘고 그대로 저녁밥을 함께 먹었다. 달 아래 함께 이야기할때 옥저(玉笛)소리가 처량했다. 오래도록 앉았다가 헤어졌다.

12일(기미) 바람은 크게 부나 비는 오지 아니했다. 가물이 심해서 농사가 염려스러웠다. 이날 어둠 무렵에 본영 격군 7명이 도망쳤다.

13일(경신) 풍세는 아주 사납고 더위는 찌는 듯했다.

14일(신유) 더위와 가물이 아주 심하여 섬 속이 찌는 듯했다. 농사를 위해 아주 걱정되는 일이었다. 충청 영공(*이순신(李純信)) 및 사도, 여도, 녹도와 더불어 활 20순을 연습하였는데, 충청이 아주 잘 맞혔다. 이날 경상 수백(*원균)이 활 잘 쏘는 부하들을 거느리고 우수사(*이억기) 처소에 왔다가 크게 지고 돌아갔다.

15일(임술) 맑더니 오후에 비가 뿌렸다. 신경황(申景漢)이 들어오는 편에 영의정(*유성룡)의 편지를 가지고 들어왔는데, 나라를 근심하는 이로 이보다 더할 분이 없을 것이다. 지사(知事) 윤우신(尹又新)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이니 슬픈 희포를 참을 길이 없었다. 순천, 보성이 보고하되, [명나라 총 병관(摠兵官) 장홍유(張鴻儒)가 호선(號船)을 타고 백여 명을 거느리고서 바닷길을 거쳐 벌써 진도(珍島) 벽파정(碧波亭 * 진도군 고관면 벽파리)에 이르렀다]고 했다. 날짜로 따지자면 오늘 내일 중에 도착될 것이지만 격풍으로 배를 마음대로 부리지 못한 것이 닥새째라 이날밤 소나기가 흠족히 내렸으니 어찌 하늘이 백성을 살리려는 뜻이 아니겠는가. 아들의 편지가 왔는데 잘 돌아갔다고 했다. 또 아내의 편지에는 아들 면()이 더위를 먹어 앓는다고 했다. 괴롭고 답답한 일이다.

16일(계해) 아침에는 비가 오더니 저녁에 개었다. 충청 수사와 활을 쏘았다.

17일(갑자) 맑음. 늦게 우수사와 충청 수사가 와서 조용히 이야기하였다. 탐선이 들어왔

데, 어머님께선 평안하시나 면은 아주 많이 아프다고 하였다. 지극히 가슴 아픈 일이다.

18일(을축) 맑음. 아침에 원수(元帥)의 군관 조 추년(趙秋年)이 전령을 가지고 왔는데, 내 용인즉, 원수(元帥)가 두치(豆峙 * 광양군 다암면 섬진리)에 이르러 광양 원(* 송전(宋詮))이 수군을 옮겨다 복병을 정할 적에 사정(私情)을 썼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군관을 보내어 까닭을 묻는다는 것이었다. 놀라운 일이다. 원수가 그 서처남(庶妻男) 조대항(曹大恒)의 말을 듣고 이렇게 사정을 쓰는 것이니 통탄스럽기 그지 없다. 이날 경상 우수사가 청하는 것을 가지 않았다.

19일(병인) 맑음. 원수 군관과 배응록(裵應祿)이 원수에게도 돌아갔다. 변존서(卞存緒), 윤사공(尹思恭), 하천수(河千壽)들이 들어왔다. 충청 수사가 보러 왔다가 그 어머니 병환 때문에 곧 그의 사처로 돌아갔다.

20일(정묘) 맑음. 충청 수사가 보러 와서 활을 쏘았다. 박치공(朴致恭)이 와서 서울 간다고 말하였다. 마량 첨사(馬梁僉使 * 강응호(姜應虎))도 왔다. 저녁에 본포(本浦 * 곧 영등포)에 물러가 있었던 영등 만호(永登萬戶 * 조계종(趙繼宗))의 죄를 다스렸다. 탐선 이인원(李仁元)이 들어왔다.

21일(무진) 맑음. 충청 수사가 와서 활을 쏘았다. 마량 첨사가 보러 왔다. 명나라 장수가 물길을 거쳐 벌써 벽파정에 이르렀다는 것을 잘못 전한 것이라 한다.

22일(기사) 맑음. 조모님 제삿날이라 공무 보지 아니했다. 이날 복더위가 전날보다 한 결 더하여 섬이 찢는 것 같아 사람이 그 고통을 참기 어려웠고, 저녁에 몸이 불편해서 두끼나 밥을 먹지 아니했다. 오후 8시께 소나기가 내렸다.

23일(경오) 맑음. 늦게 소나기가 흠뻑 쏟아졌다. 순천, 충청 수사, 우수사 우후, 거리포 첨사(* 이응표(李應彪))들이 보러 왔다. 우후(* 이몽구(李夢龜))가 군량 독촉하는 일로 견내량(見乃梁)에 나갔다가 왜놈을 사로잡아 왔으므로 왜적의 현상을 심문하고 또 무엇을 잘하는가 물었더니, 염초(焰硝) 굽는 것과 총 놓는 것을 잘 한다고 했다.

24일(신미) 맑음. 순천과 충청 수사가 왔다. 활 20순을 쏘았다.

25일(임신) 맑음. 충청 수사와 활 10순을 쏘았다. 이여념(李汝恬)도 와서 쏘았다. 종사관(從事官 * 정경달(丁景達))의 배행(陪行) 아전이 편지를 가지고 왔는데 * 조도(調度)의 말이 지극히 놀라웠다. 부채를 봉해 올렸다.

26일(계유) 맑음. 충청 수사, 순천, 사도, 여도, 고성(固城 * 조응도(趙凝道))들이 활을 쏘았다. 일찌기 김양간(金良幹)을 시켜 단오(端午) 진상물을 올려 보냈다. 마량과 영등이 왔다가 이내 돌아갔다.

27일(갑술) 맑음. 활 15순을 쏘았다.

28일(을해) 맑으나 더위는 찢는 것 같았다. 나라 * 제삿날이라 종일 홀로 앉아 있었다. 진무성(陳武晟)이 벽방(碧方) 망보는 곳의 부정 사실을 조사하고 와서 적선이 없더라고 보고했다.

[주] 나라제삿날-명종(明宗) 대왕 제삿날

29일(병사) 맑음. 순천이 술과 음식을 가져왔다. 우수사와 충청 수사가 와서 활을 쏘았다. 윤동구(尹東耆)의 아버지가 보러 왔다. 울(蔚)이 들어왔는데, 어머님께선 평안하시다고 했다.

[21] 7월

초 1일(정축) 맑음. 배응록이 원수(元帥)에게서 왔는데, 원수가 말한 것을 뇌우쳐 보내더라는 것이었다. 가소롭다. 이날 인묘(仁廟) 국기일이라 종일 홀로 앉아 있었다. 저녁에 충청 수사가 와서 함께 이야기하였다.

초 2일(무인) 맑음. 늦더위가 찢는 듯했다. 이날 순천 도청(都廳)과 색리(色吏), 광양 색리들의 죄를 다스렸다. 좌도 사부(射夫)들의 활 쏘는 것을 시험하여 적의 장물을 나누어 주었다. 늦게 순천, 충청 수사와 함께 활을 쏘았다. 배 첨지가 말미를 받아 가지고 갔다. 노윤발(盧潤發)에게 홍양 군관 이심(李深) 및 * 병선색(兵船色) * 괭군색(括軍色)들을 붙잡아 오도록 군령을 주어 내어 보냈다.

초 3일(기묘) 맑음. 충청 수사와 순천이 활을 쏘았다. 웅천 현감 이운룡(李雲龍)이 말미를

고하고 미조항(彌助項)으로 갔다. 음란한 계집을 처벌하였다. 각 배에서 여러 번 양식을 도둑질해 간 자를 처벌하였다. 저녁에 새로 지은 다락을 나가 보았다.

초 4일(경진) 맑음. 아침에 충청 수사가 와서 함께 아침을 먹었고 나중에 마량 첨사(馬梁僉使 * 강응호(姜應虎)), 소비포 권관(所非浦權管 * 이영남(李英男))이 와서 함께 점심을 먹었다. 왜적 5명과 도망한 군사 1명을 아울러 처벌하라 명했다. 충청 수사와 활 10순을 쏘았다. 옥과(玉果)에서 원호 사업을 맡아 한 조응복(曹應福)에게 참봉(參奉) 직첩을 주어 보냈다.

초 5일(신사) 맑음. 새벽에 탐선이 들어와 어머니의 평안하심을 살펴 들으니 다행, 다행한 일이다. * 심약(審藥)이 내려왔는데 심히 용렬하니 한심스럽다. 우수사와 충청수사와 함께 왔다. 여도(* 김인영(金仁英))가 술을 가져 왔으므로 함께 마시고 활 10순을 쏘았다. 많이 취해서 수루(戍樓)에 올랐다가 밤이 깊어서야 돌아갔다.

초 6일(임오) 종일 굵은 비가 내렸다. 몸이 불편하여 공무 보지 아니했다. 최귀석(崔貴石)이 도둑떼 3명을 잡아 왔기에 다시 박춘양(朴春陽)들을 보내어 원 귀가 떨어져 나간 그 괴수마저 붙잡아 왔다. 아침에 정원명(鄭元溟)들을 격군(格軍)정비하지 못한 일로 거두었다. 저녁에 보선(寶城)이 들어온다고 했다. 어머니께서 평안하시다는 소식을 들었다. 오후 10시께 삼대같은 소나기가 퍼부어 새지 않는 곳이 없었다. 촛불을 켜고 홀로 앉아 있노라니 온갖 걱정이 치밀어 왔다. 이영남(李英男)이 보러 왔다.

초 7일(계미) 저녁에 비가 뿌렸다. 충청 수사는 그 어머니 병이 중해 오지 못했다. 우수사, 순천, 사도, 가리포, 발포, 녹도들이 함께 활을 쏘았다. 이영남이 배를 거느리고 올 일로 곤양(昆陽)으로 나갔다. 사로잡혀 갔다가 돌아온 고성(固城) 보인(保人)을 신문하였다. 보성이 왔다.

초 8일(갑신) 흐리되 비는 오지 아니하고 종일 큰 바람만 불었다. 몸이 편지 않아 여러 장수들을 만나 보지 아니했다. 각 관포(官浦)의 공문을 처결하여 보냈다. 오후에 충청 수사한테 가 보았다. 저녁에 사로잡혀 갔다가 도망해 온 고성 사람을 직접 신문하였다. 광양의 송전(宋詮)이 그의 장수인 병사(兵使)의 편지를 가지고 왔다. 낙안(樂安)과 충청 우후가 온다고 했다.

초 9일(을유) 큰 바람이 불었다. 아침에 충청 우후(* 원유남(元裕男))가 교서(敎書)에 숙배(肅拜)하였다. 늦게 순천, 낙안, 보성의 군관과 색리들이 격군에 대해 등한히 하고, 또 기일 어긴 죄를 다스렸다. 가리포(加里浦 * 이응표(李應彪)), 임치(臨淄 * 홍건(洪堅)), 소근포(所斤浦 * 박윤(朴潤)), 마량첨사(馬梁僉使 * 강응표(姜應虎)) 및 고성(固城 * 조응도(趙凝道))이 왔다. 낙안군량 벼 2백 섬을 받아 들였다.

초 10일(병술) 아침엔 맑았으나 저녁에 조금 비가 내렸다. 아침에 낙안 견양 벼 찢은 것과 광양 벼 백섬을 되었다. 신흥헌(申弘憲)이 들어왔다. 늦게 송전(宋詮)이 군관과 더불어 활 15순을 쏘았다. 아침에 들으니 면()의 병세가 다시 더 컸고 토혈하는 증세까지 있다 하므로 울(蔚)과 심약(審藥) 신경환, 정사립(鄭思立), 배응록(裵應祿)들을 함께 내보내었다.

11일(정해) 굵은비가 오고 큰 바람이 불면서 종일 그치지 아니했다. 울(蔚)이 가는데 곤란할 것이 걱정되었고 면()의 병이 어떠한가도 궁금했다. 장계를 친히 기초(起草)했다. 경상 순무(巡撫 * 서성(徐))의 공문이 왔는데, 원 수사가 불평을 많이 말하였다는 것이었다. 오후에 군관들을 시켜 활을 쏘게 했다. 봉학(奉鶴)도 함께 쏘았다. 윤언침(尹彦枕)이 점고를 받기 위해 왔기에 점심을 먹여 보냈다. 저물녘에 비바람이 크게 치면서 밤새 계속되었다. 충청 수사가 보러 왔다.

12일(무자) 맑음. 아침에 소근포(所斤浦) 첨사가 보러 와서 화살 54개를 만들어 바쳤다. 서류를 처결하여 돌려 주었다. 충청 수사, 순천, 사도, 발포, 충청 우후가 와서 활을 쏘았다. 저녁에 탐선이 들어와 어머니께서 편안하시다는 것을 살폈으나 면의 병세는 여전히 중하다는 것이다. 애타는 마음이건만 어찌 하랴. 유정승(柳政丞 * 성룡)이 돌아갔다는 부고사 순변사(巡邊使)에게 왔다고 하나 이는 필시 질투하는 자들이 말을 만들어 하는 것이었다. 통분함을 참지 못하겠다. 이날 밤 심사가 심란해서 홀로 마루에 앉아 있는데, 내 마음을 스스로 견잡을 수 없었다. 걱정이 쌓여 밤이 깊도록 잠들지 못했다. 만일 유정승이 어찌 되었다면 나랏일을 어찌 할 것이라. 어찌 할 것이라.

13일(기축) 비. 비. 홀로 앉아 면의 병세가 어떤가를 생각하고 글자를 짚어 점을 쳐 보니, [군왕을 만나 보는 것 같다] (如見君王)는 괘가 나왔다. 아주 좋았다. 다시 짚으니 [밤에 등

불을 얻은 것과 같다] (如夜得燈)는 과거 나왔으니 두 과거 다 좋은 것이었다. 조금 마음이 놓였다. 또 유정승의 점을 친 즉, [바다에서 배를 얻은 것과 같다] (如海得船)는 과거 나왔고, 다시 치니 [의심하다가 기쁨을 얻은 것과 같다] (如疑得善)는 과거 나왔다. 아주 좋다. 저녁네 비가 오는데 홀로 앉아 정회를 이길 길이 없다. 늦게 송전(宋筌)이 돌아가는데 소금 1섬을 주어 보냈다. 오후에 마랑 첨사와 순천이 보러 왔다가 어두워서야 돌아갔다. 비가 올지 갇지를 점쳐 보니, [뱀이 독을 뱉는 것과 같다] (如蛇吐毒)는 과거 얻었다. 장차 큰 비가 내리겠으니 농사를 위해 걱정, 걱정스럽다. 밤에 비가 퍼붓듯이 내렸다. 오후 8시께 발포의 탐선이 편지를 받아 가지고 돌아갔다.

14일(경인) 비. 비. 어제 저녁부터 빗발이 삼대 같았다. 집이 새어 마른 데가 없어 간신히 밤을 지냈다. 점괘 얻은 그대로이니 그 참 절묘하구나. 충청 수사와 순천을 청해다가 장기를 두게 하면서 그것을 구경하는 것으로 소일했다. 그러나 근심이 속해 있으니 어찌 조금인들 편할 것이라. 함께 점심을 먹고 저녁에 수루(戍樓)로 나가 몇바퀴 돌다가 내려왔다. 밤 12시께 또 비가 내렸다.

15일(신묘) 비. 비. 늦게 개었다. 아침에 조카 해()와 종 경(京)이 왔다. 먼()의 병이 나아간다는 소식을 자세히 들으니 기쁘기 그지 없었다. 조카 분(芬)의 편지로 해서 다시 아산(牙山) 고향 선산이 무사하고 가묘(家廟)도 별일 없고 어머님도 평안하심을 알게 되었으니 다행 다행한 일이었다. 이흥종(李興宗)이 *환상(還上)때문에 매를 맞다가 숨졌다고 했다. 놀라운 일이다. 그 *삼촌 처음 듣고서 비통해 한 나머지 그 어머니도 듣고 병세가 더욱 위중해졌다는 것이었다. 활 10순을 쏘고 수루(戍樓)로 올라 거닐고 있을 때 박 주사리(朴注沙里)가 급히 와서 이르기를, 명나라 장수가 이미 본영 앞에 이르렀는데, 곧 이 곳으로 온다 하므로 즉시 삼도(三道)에 전령하여 진을 죽도(竹島 *통영군 한산면)로 옮기게 하고 거기거 밤을 지냈다.

16일(임진) 흐리고 바람이 시원하더니 늦은 아침녘에 큰 비가 내려 종일 퍼붓는 것같이 쏟아졌다. 원수사, 충청 수사, 우사사가 모두 보러 왔다. 소비포가 쇠다리 등속을 보내왔다. 명나라 장수는 삼천진(三千鎭 *삼천포시)에 와서 유숙한다는 것이었다. 여도(呂島)가 먼저 왔다. 저녁에 본진으로 돌아갔다.

17일(계사) 맑음. 새벽에 포구로 나가 진을 쳤다. 오전 10시께 명나라 장수 파총(把總) 장홍유(張鴻儒)가 병호선(兵號船) 5척을 거느리고 돛을 달고 들어와서 바로 영문에 이르러서는 육지에 내려 함께 이야기하자고 청했다. 나는 여러 장수와 함께 먼저 사정에 올라가서 올라오기를 청했더니 파총이 배에서 내려 곧 왔다. 함께 앉아 먼저 만리 바닷길에 어렵게도 여기까지 온 것을 이를 길 없이 감사하다고 인사하니, [작년 7월 절강(浙江)서 배를 타고 요동(遼東)에 이르렀더니 요동사람들이 말하기를 항로 중에 돌섬과 암초들이 많도 또 장차 화친이 될 것이니 갈 것이 없다 하며 굳이 말리므로 그대로 요동에 머무르면서 시랑(侍郎) 손광(孫鑠)과 총병(總兵), 양문(楊文)들에게 보고하고, 금년 3월 초승에 다시 출발하여 왔으니 무슨 수고가 있을 것이오]하고 대답하였다. 나는 차를 들라 하고 다시 술잔을 권하며 강개한 정회를 바꾸었다. 그리고 또 적의 정세를 이야기하느라고 밤이 깊은 줄을 몰랐다. 조용히 이야기하다가 헤어졌다.

18일(갑오) 맑음. 수루 위로 나가자고 청하여 점심 후 나가 앉아 술을 두 세 순배 돌렸다. 아마 명년 봄에는 배를 거느리고 바로 제주도로 갈 터인데, 우리 수군과 합세하여 흉악한 적들을 무찌르자고 성의있게 이야기했다. 초저녁에 헤어졌다.

19일(을미) 맑음. 아침에 환영례를 표시하는 단자(單子)를 드리니 감사함을 이기지 못하여 주는 물건이 극히 풍성하다고 했다. 충청 수사도 역시 드렸다. 늦게 우수사가 예물을 주는데 나와 같았다. 점심 후 원 수사 혼자 술 한잔을 대접하는데, 상은 그득하건만 하나도 집어먹을 만한 것이 없었다. 우스웠다. 자(字)와 별호를 물으니 써주는데, 자는 중문(仲文)이요, 호는 수천(秀川)이라고 써 보였다. 촛불을 켜 놓고 이야기하다가 헤어졌다. 비가 올 기미이기에 배로 내려갔다.

20일(병신) 맑음. 아침에 통력관이 와서 전하되, 명나라 장수(*장홍유를 이름)가 남원(南原) 유총병(劉總兵 *유정(劉挺)있는 곳에는 가지 않고 바로 돌아가고 싶다하므로 나는 명나라 장수에게 간절히 말을 전하기를 [처음에 파총이 남원으로 온다는 소식이 이미 유총병에게 전해졌는데, 이제 중지하고 가지 않는다면 그 중간에 남의 말들이 있을 터이니 가서 보고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더니, 파총이 듣고 [과연 그렇다 말을 타고 혼자 가서 서로 만나 본 뒤에 바로 군산으로 가서 배를 타겠다]고 말하였다. 아침을 먹은 뒤에 파총이

내배로 조용히 이야기하고 이별하는 술잔을 권했다. 7잔을 먹은뒤에 뱃줄을 풀고 함께 포구 밖으로 나가 두번 세번 애달픈 뜻으로 송별하였다. 그대로 경수(景受 *이억기)와 충청, 순천, 발포, 사도와 함께 사인안(舍人巖)으로 올라가 종일 취하여 이야기하다가 돌아왔다.

21일(정유) 맑음. 아침에 명장(明將)과 문답한 것을 서류로 꾸며 원수(元帥)에게 보고했다. 늦게 마량 소근포 첨사(*박윤(朴潤))가 보러 왔다. 발포가 복병하러 나가는 일을 고하고 갔다. 저녁에 수루에 올랐는데 순천이 와서 이야기하였다. 오후에 흥양 군량선이 들어왔는 급, 색리와 선주(船主)에게 족장(趣掌)을 호되게 때렸다. 늦게 소비포(所非浦 *이영남(李英男))가 보러 와서 말하기를, 기한에 대지 못하였다고 해서 원수사에게 곤장 30대를 맞았다고 한다. 몹시 해괴한 일이다. 우수사가 군량 20섬을 꾸어 갔다.

22일(무술) 맑음. 아침에 강계 초고를 수정했다. 임치(臨淄 *홍건(洪堅) 및 목포(木浦 *전희광(田希光))가 보러 왔다. 늦게는 사량(蛇梁 *이여념(李汝恬)) 영등(永登 *조계종(趙繼宗))이 보러 왔다. 오후에 충청 수사(*이순신(李純信)) 순천(*권준(權俊)) 충청 우후(*원유남(元裕男)) 이영남과 함께 활을 쏘았다. 해질 녘에 수루에 올랐다가 밤이 되어서 돌아왔다.

23일(기해) 맑음. 충청 수사가 우수사, 가리포(加理浦 *이응표(李應彪))와 보러 와서 활을 쏘았다. 조카 해()와 종 봉()이 돌아갔다. 목년(木年)이 들어왔다.

24일(경자) 맑음. 여러 가지 장계를 친히 봉했다. 영의정(*유성룡)께와 심병판(沈兵判 *충겸(忠謙)) 윤판서(*근수(根壽))께 편지를 썼다. 저녁에 활 7순을 쏘았다.

25일(신축) 맑음. 아침에 하천수(河千守)에게 장계를 들려 떠나 보냈다. 조식 후 충청 수사, 순천 등과 더불어 우수사에게 가서 활 10순을 쏘았다. 크게 취해 돌아와서 밤새 토했다.

26일(임인) 맑음. 아침에 각 관포(官浦)의 공문을 처결해 보냈다. 식사 후에 수루 위에 올라 앉았는데, 순천과 충청 수사가 보러 왔다. 늦게 녹도 만호(*송여종(宋汝悤))가 도망간 군사 8명을 잡아 왔기로 그 중 괴수 3명은 처형하고 나머지는 곤장을 때렸다. 저녁에 탐선이 들어와 아들들의 편지를 보니, 어머님께서는 평안하시고, 먼()의 병세는 나아간다는 데 허씨댁(許室)의 병세가 점점 중하다고 하니 염려스럽다. 유홍(兪弘)과 윤근수(尹根壽)가 세상을 떠나고 윤돈(尹墩)이 종사관(從事官)으로 내려온다고 한다. 신천기(申天機)가 들어오고 저물녘에는 신제운(申霽雲)이 와서 보았다. 노윤발(盧潤發)이 흥양의 색리와 감관(監官)을 붙잡아 가지고 들어왔다.

27일(계묘) 흐리고 바람이 불었다. 밤에 꿈을 꾸었는데, 머리를 풀고 크게 울었다. 이것이 좋은 징조라고 한다. 이날 충청 수사, 순천과 더불어 수루에 올라 활을 쏘았다. 충청 수사가 *과하주(過夏酒)를 가져 왔다. 나는 몸이 불편해서 조금 마셨는데 별로 낫지 않았다.

28일(갑진) 맑음. 흥양 색리들의 죄를 다스렸다. 신제운(申霽雲)이 주부(主簿)의 직첩(職牒)을 받아 가지고 갔다. 늦게 수루에 올라가 벽 바르는 것을 감독했다. 의능(義能)이 그일을 맡아 했다. 저물어서 방으로 돌아왔다.

29일(을사) 종일 부슬비가 내리고 바람기는 없었다. 순천과 충청 수사가 바둑 두는 것을 구경하는데, 몸이 아주 편치 않았다. 낙안도 함께 왔었다. 이날 밤을 신음으로 새었다.

[22] 8월

초 1일(병오) 비. 비. 큰 바람이 불었다. 몸이 편치 않아 수루 방에 앉아 있다가 곧 마루방으로 돌아왔다. 저녁에 낙안(*김준계(金遵繼))이 강집(姜輯)을 데리고 군량 독촉하는 일로 군율을 받들어 공초하고 내어보냈다. 비는 낮부터 밤까지 계속되었다.

초 2일(정미) 비가 퍼붓듯이 내렸다. 초1일 한밤중에 꾸니 *부안(扶安) 사람이 아들을 낳았다. 달수로 따져 날을 달이 아니었으므로 꿈이지마는 내쫓아 버렸다. 기운이 좀 나는 것 같았다. 늦게 수루 위에 올라 앉아 충청 수사, 순천(*권준(權俊)) 및 마량(*강응호(姜應虎))과 함께 이야기하며 새로 빚은 술 몇잔을 마셨다. 종일 비가 내렸다. 송희립(宋希立)이 와서 고하기를, 흥양 훈도(興陽訓導)도 작은 배를 타고 도망했다는 것이었다.

초 3일(무신) 아침에 흐리다가 저물녘에 개었다. 충청 수사, 순천과 활 서너 순을 쏘았다. 수루 방을 도배했다.

초 4일(기유) 아침 나절엔 비가 뿌리다가 저녁 나절엔 개었다. 충청 수사 및 순천, 발포들

이 와서 활을 쏘았다. 수루 방의 도배를 마쳤다. 경상 수사의 군관과 색리(色吏)들이 명나라 장수(* 장홍유(張鴻儒))를 접대할 적에 여인들에게 떡과 음식물들을 이고 오게 한 죄를 다스렸다. 화살 만드는 사람인 박옥(朴玉)이 와서 대(竹)를 가져갔다. 이종호(宗浩)가 안수지(安守智)들을 잡아오기 위해 흥양으로 떠났다.

초 5일(경술) 아침에는 흐렸다. 식사 후 충청 수사, 순천과 함께 활을 쏘았다. 오후에 경상 수사에게로 간 즉, 우수사가 먼저 와 있었다. 한참 동안 서로 이야기하다가 돌아갔다. 이날 웅천(* 이운룡(李雲龍)), 소비포(* 이영남(李英男)), 영등포(* 조계종(趙繼宗))와 윤동구(尹東耆)들이 모두 선봉장으로서 여기왔다.

초 6일(신해) 아침엔 맑더니 저물녘에 비가 왔다. 충청 수사와 활 10순을 쏘았다. 저녁에 장흥(* 황세득(黃世得))이 들어오고 보성이 나갔다. 탐선이 들어왔는데, 어머님께서 평안하시고 먼()역시 차츰 차도가 있다 한다. 고성(* 조응도(趙凝道)) 및 사도(蛇渡 * 김완(金浣)) 적도(赤島 * 고여우(高汝友))가 왔다가 갔다. 이날 밤 수루 방에서 잤다.

초 7일(임자) 비. 비. 종일 내렸다.

초 8일(계축) 비. 비. 종일 내렸다. 정 조방장(丁助防將 * 응운(應雲))이 들어왔다.

초 9일(갑인) 비. 비. 우수사 및 정조방장, 충청 수사, 순천, 사도와 함께 이야기했다.

초 10일(을묘) 비. 비. 종일 내렸다. 충청 수사 및 순천이 와서 이야기했다. 이날 장계(狀啓) 초고를 수정했다.

11일(병진) 종일 큰 비가 내렸다. 이날밤 모진 바람이 불고 큰 비가 내렸다. 지붕이 세 겹이나 벗겨져 삼대같이 비가 겹다. 새벽까지 앉아서 밝혔다. 양편 창문은 모두 바람에 찢겨 없어졌다.

12일(정사) 흐리되 비는 오지 아니했다. 늦게 충청 수사 및 순천과 함께 활을 쏘았다. 소비포, 웅천도 와서 쏘았다. 아침에 원수(元帥)의 군관이 전령을 가지고 이곳에 왔는데, 군사 약속을 직접 만나서 의논하자 하므로 오는 17일에 사천(泗川)으로 나가 기다리겠다고 하였다.

13일(무오) 맑음. 아침에 심준이 돌아갔으며 노윤발(盧潤發)도 돌아갔다. 오전 10시께 배로 내려가서 여러 장수들을 거느리고 견내량(見乃梁)으로 갔다. 따로 날쌔 장수를 선정하여 * 춘원(春原 * 통영군 광도면 예승포)등지로 보내어 적을 기다려 무찌르지게 했다. 놀러 잤다. 달빛은 비단결 같고 바람 없이 잔잔한데 해(海)를 시켜 젖대를 불게 했다. 밤이 깊어서야 그만 두었다.

14일(기미) 아침에 흐리다가 저물녘에 비가 내렸다. 아침에 사도 및 소비포, 웅천들이 보고하되, [왜선 1척이 춘원(春原)에 대어 있기로 갑자기 엄습했더니 왜놈들은 배를 버리고 달아나고 우리 나라 남녀 15명과 적선만을 뺏아 왔다]는 것이었다. 오후 2시께 진으로 돌아왔다.

15일(경신) 맑음. 식후에 출발하여 원수사와 함께 월명포(月明浦 * 통영군 산양면)에 이르러 잤다.

16일(신유) 맑음. 새벽에 출발, 소비포에 이르러 배를 정박하고 아침을 먹은 뒤 돛을 달고 사천 선창(泗川船艙 * 사천군 읍남면 선진리)에 이르니 기직남(寄直男)이 곤양(昆陽 * 이광악(李光岳))과 함께 와 있었다. 그대로 유숙했다.

17일(임술) 흐리다가 저물녘에 비가 내렸다. 원수(* 권율(權慄))가 오정에 사천으로 와서 군관을 보내어 이야기하자고 하므로 곤양(昆陽)말을 빌어 타고 원수가 머무르고 있는 사천 원의 사처로 갔다. 교서(敎書)에 숙배(肅拜)한 뒤에 공사간의 인사를 마치고 그대로 이야기하니 오해가 많이 풀리는 빛이었다. 원 수사를 몹시 책망하니 원수사는 머리를 듣지 못하였다. 우스웠다. 가져간 술을 내놓고 마시기를 청하여 8순을 돌렸다. 원수가 잔뜩 취해 상을 멀리고 나도 숙소로 돌아왔다. 박종남(朴宗男) 윤담(尹潭)이 보러 왔다.

18일(계해) 흐리되 비는 오지 아니했다. 아침을 먹은뒤 원수가 청하므로 나아가 이야기하고 또 간단한 술상을 차렸다가 잔뜩 취해서 하직을 고했다. 원수사는 취해서 일어나지를 못하고 그대로 누워 있기 때문에 나는 혼자 곤양, 소비포, 거제(* 안위(安衛))와 더불어 배를 돌이켜 삼천포 앞에 이르러 잤다.

19일(갑자) 맑음. 저물녘에 잠깐 비가 내렸다. 새벽에 사량(蛇梁 * 통영군 원량면)뒤 쪽에

이르렀는데, 원 수사는 아직 오지 아니했다. 첩 60동을 캐고 나니 그제야 원 수사가 왔다. 늦게 출발하여 당포(唐浦 *통영군 산양면 삼양리)에 이르러 잤다.

20일(을축) 맑음. 새벽에 출발하여 진에 이르렀다. 우수사와 정 조방장이 보러 왔다. 정은 곧 돌아가고 우수사 및 장흥, 사도, 가리포, 충청 우후(*원유남(元裕男))와 활을 쏘았다. 저녁에 젖대 불고 노래하다가 밤이 깊어서야 헤어졌다. 미안스러운 일이 많이 있었다. 충청 수사는 어머니 병환이 위중해서 흥양으로 떠나갔다.

21일(병인) 맑음. 외갓집 제사날이라 공무 보지 아니했다. 곤양, 사도, 마량, 남도(南桃 *강응표(姜應彪)), 영등, 회령(會寧), 소비포 등이 왔다. 양정언(梁廷彦)이 보러 왔다.

22일(정묘) 맑음. 나라 *제삿날이라 공무보지 아니했다. 경상 우우후(慶尙右虞候 *이의득(李義得))가 보러 왔다. 낙안, 사도도 왔다가 갔다. 저녁에 곤양, 거제, 소비포, 영등이 와서 이야기하다가 밤이 깊어 돌아갔다.

【주】 나라 제삿날-성종(成宗) 정현왕후 윤씨(貞顯王後尹氏)의 제삿날.

23일(무진) 맑음. 아침에 서류 초안을 작성하고 식후에 사정에 옳아 앉아 서류를 처결해 보내고서 활을 쏘았다. 바람이 몹시 사나웠다. 장흥, 녹도가 함께 왔다. 저물녘에는 곤양, 웅천영 등 거제 및 소비포들이 왔다. 오후 8시께 헤어져 돌아갔다.

24일(기사) 맑음. 각 고을 수군 징발할 일로 박언춘(朴彦春) 및 김윤(金倫), 신경황(申景潢)을 내어 보냈다. 정 조방장이 돌아갔다. 늦게 소비포가 보러 왔다.

25일(경오) 맑음. 아침에 곤양과 소비포를 불러 조반을 함께 했다. 사도(蛇渡)가 휴가를 얻어 돌아가기로 9월 초일에는 돌아오라고 일러 보냈다. 현덕린(玄德隣)이 제집으로 돌아가고 신천기(申天紀)도 곡식 바칠 일로 해서 돌아갔다. 늦게 흥양(*배흥립(裵興立))이 돌아왔다. 사정으로 내려가 활 6순을 쏘았다. *정원명(鄭元明)이 들어왔다고 한다.

26일(신미) 맑음. 아침에 각 관포의 서류를 처결해 보냈다. 흥양 보자기 막동이란 자가 장흥(長興) 군사 30명을 그의 배에 싣고 도망간 죄로 사형에 처하여 효시(梟示)했다. 늦게 사정에 가서 활을 쏘았다. 충청 우후(*원유남(元裕男))도 와서 함께 쏘았다.

27일(임신) 맑음. 우수사가 가리포, 장흥, 임치, 우후(*이몽구(李夢龜)) 및 충청 우후와 함께 와서 활을 쏘았다. 흥양이 술을 내놓았다. 아침에 울(蔚)의 편지를 보니 아내의 병이 중하다 했기로 회()를 내어보냈다.

28일(계유) 밤 2시께부터 부슬비와 큰 바람이 불었는데, 비는 아침 6시께 개었으나 바람만은 종일 크게 불어 밤새 그치지 아니했다. 회가 잘 갔는지 못 갔는지 몰라 심히 염려스러웠다. 진도원(珍島 *김만수(金萬壽)) 보러 왔었다. 원수(元帥)의 장계로 해서 문책하는 글이 내려왔는데, 거의 장계의 오해에 말미암은 것이었다.

29일(갑술) 맑으나 북풍이 크게 불었다. 아침에 마량 첨사와 소비포가 와서 함께 밥을 먹었다. 늦게 사정에 옳아 앉아 서류를 처결해 보냈다. 도양(道陽)의 머슴군 박돌이(朴堧伊)의 죄를 다스렸으며, 도둑 3명 중 장순(張孫)은 곤장 백개를 때리고 얼굴에 도(盜)자를 먹물 들였다. *해남 현감(海南縣監 *현집(玄楫))이 들어왔다. 의병장 성응지(成應祉)가 세상을 떠났다. 참으로 슬프다.

그믐날(을해) 맑고 바람도 없었다. 아침에 해남 원 현집이 보러 오고 늦게 우수사 및 장흥이 보러 왔다. 허정은(許廷闇)도 왔다. 이날 아침 탐선이 들어왔는데, 아내의 병세가 아주 위중하다는 것이었으니 벌써 생사간 결말이 났을지도 모른다. 나랏일이 이에 이르렀으니 다른 일에 생각이 미칠 수 있으랴마는 세 아들 딸 하나가 어떻게 살아 갈꼬, 아프고 괴롭구나. 김양간(金良幹)이 서울로부터 영의정(*유성룡)의 편지와 심충겸(沈忠謙 *병조판서)의 편지를 가지고 왔는데, 분개한 뜻이 많이 적혀 있었다. 원 수사의 일은 참을 해괴하다. 날더러 머뭇거리며 앞으로 나가지 않는다 했더니 이는 천고에 탄식할 일이다. 곤양(昆陽)이 병으로 돌아갔는데, 보지 못하고 보내서 더욱 유감스러웠다. 밤이 들면서 심사가 산란하여 잠을 이루지 못했다.